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여수시 명예시민 됐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이 명예 여수시민이 됐다. 정의화(사진 왼쪽)는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 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정 여수시 향우회 신년 하례식에서 오현섭 여수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정의화는 지난 2006년 국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직을 맡아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지원을 이끌어 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대 공대 광양 이전 공방 가열

장만채 총장 “공대 이전은 대학·지역 상생의 길” 강행 밝혀 노관규 시장 “총장과 공대 몇몇 교수가 주도...이전 철회를”

순천대 공대의 광양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8일 순천대 공대 이전 계획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노관규 순천시장과 시청 공무원노조, 각계 인사들이 이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순천대 측은 이전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만채 국립 순천대 총장은 24일 “공대의 광양 이전은 대학과 순천·광양 지역이 상생하는 길로,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올해 300여명의 편입생을 뽑아야 할 정도로 순천대 학생 수가 감소해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내에 대학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며 “공대의 광양 이전을 통해 포스코와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포스코가 1992년 학교 지원금 명목

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 뒤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순천대 공대가 광양으로 이전하면 포스코와 순천대가 서로 역할을 분담해 공조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대학 건물 신축 예산으로 300여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도 순천에는 땅이 없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인 반면 광양시와 구례군 등 인근 자치단체들은 대학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제안을 해오고 있다”면서 “농대의 교흥 이전을 위해 고흡만 간척지 100만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2일 “순천대가 대학 발전에 열정을 다했던 동문, 시민과 단 한 번의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총장과 공대의 몇몇 교수들이 주도해 공대를 광양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순천대가 공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면 가칭 ‘순천대학교 사랑모음 통장’이라도 발행해 심시일반으로 시민들의 정성을 모으겠다”면서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순천, 여수, 광양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순천시의회도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73년간 순천시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 꾸준히 성장 발전해 온 순천대의 공대 이전 추진은 지역민을 무시하고 양 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수 의장은 24일 “장만채 총장이 지난 19일 의장단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전 백지화를 시사하고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대는 물론 농대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순천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시가 지난 23일 여수·광양시에 광양만권 3개 도시 통합추진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행정협의회 소집을 요청해 공대 이전 논란이 광양만권 통합 논의를 다시 확산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친환경 청정 ‘낙안 오이’ 수확 한창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 일대 시설하우스에서 친환경 오이 수확이 한창이다. 순천시 ‘1읍 1특품’의 하나인 ‘낙안 오이’는 일조량이 많고 양질의 토양에서 재배돼 우수한 맛과 품질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전남대 여수캠퍼스 학군단 1학년 신설 광양항-中 타이창항 ‘투자양해각서’ 체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학군단이 신설된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이번 학기부터 학군단 1학년 신설을 인가받아 오는 3월3일부터 재학생들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학군단은 중령급을 단장으로 매년 25명의 학생을 선발해 ROTC(학생군사교육단)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전남대는 지난해 3월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여수캠퍼스에 ROTC 신설을 추진해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양항이 중국 수저우시 타이창항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광양시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중국 수저우시 인민정부, 타이창 항만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양에서 MOU를 체결하고 광양항과 타이창항 간 물류 활성화를 통해 양지역 배후단지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광양시와 수저우시는 광양~타이창 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고 2010 상하이세계박람회와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겨냥한 카페리 운항도 추진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光州日報 記事內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양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성 85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완도 554-6677	장성 392-2100
고흥 833-9900	영광 351-0055	담양 383-8111
낙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곡성 362-8111	강진 434-6830	광산 944-0444
	함평 324-8111	

건축민원, 안방서 클릭 한번으로 ‘척척’

순천시 내달 25일부터 ‘세움터’ 가동

순천 시민들은 앞으로 시청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다음달 25일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본격 가동한다. <사진>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40여 종에 이르는 각종 건축 관련 구비서류 제출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처리기간도 6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어 민원 처리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각종 비리 근절도 기대된다. 이밖에 건축물대장과 건축허가 및 준공도면, 감리보고서 등을



인터넷으로 관리할 수 있고 화재 발생시 실시간 건축 도면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화재 진압 및 현장 구조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울촌산단에 중견업체 2개사 입주

순천시-대경기계기술·창원엔지니어링, MOU 체결

울촌산단에 중견 제조업체 2개사가 입주한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대경기계기술(주), (주)창원엔지니어링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경기계기술은 울촌산단 3만6천364㎡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자, 열교환기와 압력용기, 보일러 등을 생산하게 된다. 대경기계기술은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으로 동종 업계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90% 이상을 광양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어서 광양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또 (주)창원엔지니어링도 울촌산단 3만551㎡에 250억 원을 투자해 선박과 엔진용 배관 및 해양플랜트 제작 공장을 건립한다. 지난 1988년 설립된 창원엔지니어링은 국내 급지의 선박 및 플랜트배관 전문 생산업체로 순천시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에 따라 울촌산단에 입주하게 됐다. 순천시는 이들 기업에 필요한 산업인력 1천500명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V대학 순천캠퍼스 등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신규어메입수기 70~80% SALE

센스우드가구 전문점 Sense Wood

BIG SALE

요한이네 할인매장